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의 「아베(阿部)무불옹(無佛翁)을 추모함」

- 해설 및 역문 자료

심원섭

인하대 대학원 한국학과 BK21 연구교수, 한국근대문학 전공
sws42@yahoo.co.kr

- I. 「아베 무불옹을 추모함」의 연구사적 가치
 - II. 아베의 '내선융화' 언론활동과 김옥균, '귀족 사회'에 대한 유화 정책
 - III. 아베의 계몽적 종교 정책과 조선 종교계와의 유화적 관계
 - IV. 나카무라의 추도문과 이광수의 추도문
- 자료: 「아베 무불옹을 추모함」 - 역문 전문

I. 「아베 무불옹을 추모함」의 연구사적 가치

4대 경성일보 및 3대 매일신보 사장을 지낸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 1862-1936)는, 조선의 대표적인 작가, 언론인, 종교인 및 청년 계층과 광범위한 교분을 나누면서 그들의 체제 내로의 회유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이토 마코토의 문화통치 정책 참모로 장기간 활약한 인물이다.¹⁾ 그는 조선 지식인 사이에 온건하고 유희적인 일본인 엘리트로서 인기가 있었던 한편, 총독부의 강경과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된 바 있기도 하다.²⁾

아베가 식민지 시대 한국지성사 속에 남긴 넓은 흔적과 그 문제성에 비해 볼 때, 그에 대한 독립적 연구가 매우 적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³⁾ 그의 존재 자체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었던 점, 그가 개인적인 글을 공표하지 않는 스타일의 인물인 점, ‘뒤에서 일을 조용히 추진하는’ 실무형의 인간이었던 점⁴⁾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어쨌든 그의 정책 건의 서간 내용에 대한 강동진의 대거 분석(1980) 이후, 김윤식(1987)과 최근 심원섭(2009)으로 연구사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⁵⁾ 필자는, 매일신보 감사 및 경성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1)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참조. 아베가 사이토 마코토에게 보낸 서간의 독해작업에 토대를 둔 이 연구 성과는, 문화통치 정책 결정 과정 및 조선 지식인의 동태가 소상히 파악 가능한 자료다.

2) 이광수, 김윤식 역, 「無佛翁의 追憶」, 『韓國文學』(1987.6), 333쪽 참조.

3) 아베 연구는, 위의 강동진(1980) 이후에는, ‘경성일보’ 혹은 도쿠토미 연구, 또는 이광수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정진석, 「언론사 탐구 - 일제 언론침략의 총본산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연구」, 『관훈저널』(2002년 여름); 『京城日報社誌』(京城日報社, 1920.9); 柴崎力榮, 「徳富蘇峰と京城日報」(『日本歴史』 1983.10);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 『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地 7卷 文化の中の植民地』(岩波書店, 1993) 참조. 도쿠토미 관련 자료집 내 기록으로서는 『徳富蘇峰民友社 關係資料集』(三一書房, 1968); 酒田正敏 외, 『徳富蘇峰關係文書』 近代日本史料叢書, 7-2, (山川出版社, 1985) 등이 있다. 국내 문학 연구 성과 속에 흔히 등장하는, 아베 관련 논의 내용은 대부분은, 김윤식의 『이광수 연구2』(한길사, 1986) 6-9장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4) 中村健太郎, 「阿部無佛翁を偲ぶ(一)」, 『京城日報』(1936.1.14).

5) 김윤식은 아베와 이광수와의 관계를 곳곳에서 제시한 『이광수 연구2』(한길사, 1986) 이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소상하게 기술된 이광수의 「無佛翁의 憶出」(『京城日報』, 1939.3.11-3.16)을 발굴 소개하였다. 주2 참조. 이후 나온 성과가 심원섭,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현대문학의 연구』 39집, 2009.10)와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조선기행문 <湖南遊歷>, <開城無佛雜話>」(『한국문학논총』 53집, 2009.12)이다. 전자에서는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의 『朝鮮生活50年』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가 아베의 사망(1936.1.2) 직후인 1936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베 무불翁을 추모함(阿部無佛翁を偲ぶ)」이라는 장문의 추도문을 《경성일보》에 연재 발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윤식 교수에 의해 공개된 이광수의 추도문(「無佛翁の憶出」, 《경성일보》, 1939.3.11-3.19)은 물론, 기왕의 언론사 관련 연구 성과 속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아베의 조선 관련 행적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초 자료 조사 작업이 미진한 아베 연구사에 있어서 귀중한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친일’에 동원되고 있었던 조선 지식인의 입장에서 씌어진 이광수의 글과 달리, 이 자료가 아베의 측근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기술 내용의 신빙성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에 나타난 아베의 조선 재임시대의 행적 중에서 기왕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점들을 집중적으로 요약 소개한 후, 번역문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II. 아베의 ‘내선융화’ 언론활동과 김옥균, ‘귀족 사회’에 대한 유화 정책

1899년 구마모토 현이 파견한 조선유학생 2기생 출신으로서 경부철도 사무소, 한성신보사 주관을 거쳐 1910년 10월부터 매일신보 감사로 활동을 시작한 나카무라 겐타로는, 총독부 고등경찰과로 전직하는 1921년까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편집 책임자로서 일한 바 있다.⁶⁾ 한편 그는 1914년 경성일보 사장으로 부임한 아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베의 조선 지식인들과의 교류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아베의 사찰 방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 역시도 불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발심하는 인생 역정을 보여준 바도 있다.⁷⁾ 아베 사망 후 조선에서 발표된 첫번째 추도문

(靑朝社, 1969.7)을 바탕으로, 아베의 용주사 방문 및 강대련과의 관계,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의 문인문화적 풍속과 아베의 위상, 조선 청년계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면모, 무불암(無佛庵)의 유래 등, 아베의 경성일보 사장 시대의 전기적 사실 일부를 제시하였다. 후자는 아베가 1916년 경성일보에 발표한 두 편의 기행문을 분석한 내용으로서, 당시 아베가 갖고 있었던 식민지 경영자로서의 관점과 조선관, 조선 고문화 및 불교 유적에 대한 관심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 나카무라의 이력 사항은,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90·92·104쪽;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 검열과 탄압』(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54쪽 참조.

의 필자로서 그가 선정된 것은, 조선 재임시대의 아베의 모습을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는 경성일보사 측의 판단이 배후에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물론 크다. 이 나카무라 겐타로가 발표한 「아베 무불옹을 추모함(阿部無佛翁を偲ぶ)」은 총 4회에 걸쳐 경성일보에 발표되어 있다. 서지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다.

- 「阿部無佛翁を偲ぶ(一) 一. 翁と半島操觚界」,
《京城日報》, 1936.1.14 (3면)
- 「阿部無佛翁を偲ぶ(二) 二. 翁と貴族社會, 三. 翁と朝鮮儒林」,
동, 1936.1.15 (3면)
- 「阿部無佛翁を偲ぶ(三) 四. 翁と朝鮮佛教の復興」,
동, 1936.1.16 (3면)
- 「阿部無佛翁を偲ぶ(四) 五. 翁と天道教, 六. 翁とキリスト教」,
동, 1936.1.17 (3면)

나카무라 겐타로의 추모문은, 자신의 과거 상사에게 바쳐진 글답게, 아베의 조선 재임시대의 공적을 요약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양한 공적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카무라는 하나의 초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그것은 아베가 얼마나 ‘조선 문화를 이해하고 조선인과 융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다. “아낌없는 보시행의 실천자”로서 청초하게 인생을 살다 간 불교 수행자, 조선인에 대한 이해자이며 후원자 등의 이미지로 아베를 묘사한 이광수의 추모문 내용과 상당 정도 겹쳐지는 데가 있다.⁸⁾ 나카무리는 추모문의 ‘서문’이라 할 만한 제1회 「옹과 반도 언론계」 속에서 아베의 삶의 스타일과 조선 재임시대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백작은 일찍이 옹을 평하여 가로되 “옹은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큰일을 하는 걸 언제나 즐기는 분이”라 한 바 있다. 옹이 조선에서 행하신 업적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음지에서 큰일을 하시는 것으로 시중하시었다. 그러나

7) 심원섭,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39집(2009.10), 596-599쪽 참조.

8) 심원섭, 「이광수의 친일기 내면풍경과 불교, 아베 미즈이에」,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소명, 2003), 246-250쪽 참조.

옹의 그 ‘음지에서 큰일을 하심은, 일한합병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 위대 심오한 이상과 신념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음지에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베 삶의 스타일이라는 말은, 생애 내내 도쿠토미 소호의 측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사적인 문장 역시도 거의 남기지 않았던 아베의 인생 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 외에 나카무리는 조선 재임시대의 업적을 이끈 아베의 정신적 원동력의 핵심을 ‘내선일가의 열매를 거두려는 이상과 신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36년이라는 시국의 냄새가 더해져 있는 이 거대 담론은, 물론 지배 엘리트의 일원이었던 아베의 사상적 면모를 규정하는 상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정밀한 아베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대 담론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을, 아베 개인의 사상적 스타일의 면모 역시도 심도있게 탐구되어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카무리의 추모문 내용은 반 이상이, 아베와 조선 종교와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베와 조선 불교와의 관계를 따로 한 장으로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앞서서도 일부 소개한 바대로, 이것은 사크소엔(釋宗演)이 이끄는 가마쿠라 임제종의 수행 그룹의 일원이었던 아베가, 선 수행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온 점,⁹⁾ 그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선 수행의 전통이 강한 조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점, 그를 수행했던 나카무라 역시도 아베에게서 얻은 자극으로 말미암아 불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전후 사정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14일자 「웅과 조선 언론계」의 내용은, 1914년 부임 이후 아베의 경성일보 운영 및 ‘내선융화’ 사업과 관련된 업적을 소개한 내용으로서, 소개 내용의 반 정도는 이미 언론 관련 연구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경성일보 설비 시설의 정비 및 확충, 지면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 가정박람회 개최, 남북만주시찰단, 규슈 시찰단의 기획 등 신문사 차원에서 행해진 기획 사업들이 그것들이다. 이 사항들은 당시 경성일보 및 매일신보 기사 및 정진석의 연구, 매일신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등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¹⁰⁾ 문제는 나머지 반 정도의 내용인데,

9) 高野靜子, 「釋宗演と鈴木大拙①」(『環』5호, 2001, 봄), 380-395쪽; 高野靜子 「釋宗演と鈴木大拙②」(『環』6호, 2001, 여름) 326-339쪽 참조; 심원섭, 앞의 논문,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600쪽; 齋藤昭俊·成瀬良徳(編), 『日本佛敎人名辭典』(東京, 新人物往來社, 1986), 193쪽 참조.

10) 정진석의 앞 논문 및 조성운, 「191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조성운, 「매일

가령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기로 한다.

또한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에게 병합 후의 조선 사정을 소개해 마땅한 바, 매일신보(每日申報)의 만주 진출을 기도함과 동시에, 조선 인사로 구성된 남북 만주시찰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단장이 되어 재만조선인을 위문하고, 나아가 내지의 조선인 동화 상황을 친히 시찰하려는 뜻을 세우고, 이와 더불어 조선인 인사를 망라한 규슈 일순시찰단(九州一巡視察團)을 조직하고, 가고시마(鹿兒島)의 묘대천(苗大川)의 조선인 부락 시찰의 단초를 여는 등, 옹은 항상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 사이에 옹은 조선 전도(全道)의 언론계의 친화통일(親和統一)을 꾀하여, 대정 4년 경성에서 개최된 전국 신문기자대회의 회장이 되어, 이것의 완성을 기한 바,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어 전 조선 언론계의 친화통일이 훌륭하게 완성된 것이었다.

아베 스스로가 '남북 만주시찰단'의 '단장'으로서 재만 조선인의 '위문'에 직접 나섰다든 점, 가고시마의 묘대천(苗大川) 조선인 부락 시찰의 단초를 열었다든 점, 전국 신문기자 대회의 회장이 되어 조선 언론계의 통일을 꾀했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런 사항들은 나카무라의 추도문 속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이라 보아도 된다고 생각된다.

15일자 「옹과 귀족 사회(翁と貴族社會)」는 아베와 조선의 구지배계급 및 지식인 등과의 관계를 기술한 내용이다. 이완용, 송병준 등 한일 합방의 조선측 주역들과의 관계, 당시 매일신보 기자였던 방태영(方台榮)을 통역 겸 비서로 발탁하여 썼다는 사실, 조선의 구지배계급의 신임을 사는 데 진력·성공했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이완용 등 합방의 주역들과의 관계는 특별히 주목되는 바 없으나, 방태영을 측근으로 기용했다는 내용은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 본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명치 24년, 조선의 지사인 金, 朴 제씨가 동경 망명 중이던 시기, 옹은 양씨를 찾아 깊이 체맹(締盟)한 바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니, 옹의 경성일보 사장 취임은, 그 승지(崇志)를 실행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명치 24년(1891년)이라면, 아베가 구마모토 생활을 청산하고 상경한 뒤, 국민신문 주간(1896년), 즉 국민신문의 실무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었던 때이며,¹¹⁾ 도쿠토미 소호 역시도 국권주의, 대일본주의자로서의

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 시찰단, 이상 수요역사연구회,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두리미디어, 2009), 9-58쪽;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 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37집(2005.2), 83쪽 참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 아베가 김옥균과 박영효를 찾아가 ‘체맹(締盟)’을 했다는 설이 있으며, 1891년부터 국민신문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아베가 경성일보 사장으로 부임한 것도 이런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나카무리는 소개하고 있다. 필자의 과문일지 모르나, 일본 망명기의 김옥균과 친분을 맺었던 일본인 인사 목록 중에, 아베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의는 아직 목도한 바가 없다. 만약 김옥균과 아베와의 교제설이 사실이라면, 아베 연구는 물론 김옥균 연구사에도 의미있는 일점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자료의 확인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II. 아베의 계몽적 종교 정책과 조선 종교계와의 유화적 관계

15일자로부터 17일자까지의 내용은 조선의 유림, 불교, 천도교, 기독교에 대한 아베의 정책과 그 실천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가 조선의 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각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화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진력했다는 점들이 기술되어 있다. 아베가 안정사(安靜寺)를 비롯한 일부 사찰을 방문한 사실, 조선 고적과 특히 불교문화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었던 점은,¹²⁾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나 당시 경성일보 및 매일신보 지면, 그리고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아베가 조선의 종교계 전반에 걸쳐 그 현상을 인정하는 포용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족운동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조직의 구성원들과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이 추모문에서 새롭고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5일자 추모문인 「웅과

11) 이상 아베의 전기 사항은 정진석의 앞책, 『언론 조선총독부』 76쪽 참조.

12) 그의 조선 사찰 방문 사실 중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1915년 초 용주사 방문 사실과 1916년 안정사 방문 사실, 두 가지다. 전자는 심원섭의 위 논문,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589-597쪽 참조. 후자는 省悟生, 「秋夕에 訪安靜寺 / 安靜窟의古蹟으로 / 先賢의当代를追慕」, 『毎日申報』(1916.9.14) 참조. 그의 조선 불교 및 고적에 대한 애착은 1915년 그가 발표한 두 편의 조선 기행문 속에도 잘 드러나 있다. 관련 사실은 심원섭의 앞 논문, 「아베 미즈이에의 조선기행문(湖南遊歷)」, 〈開城無佛雜話〉, 427-431쪽 참조.

유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옹은 이러한 유림을 향하여 동양의 대세를 알리고 일한병합이 이뤄지게 된 이유를 이해시켜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유림과의 접촉을 꾀한 것이었다. 우선 경학원(經學院) 대체학(大提學)을 위시하여 부제학(副提學), 사성(司成) 등 간부진과 교제를 쌓고, 연후에는 춘추(春秋)기에 행해지는, 경학원의 석존제(釋尊祭)에 참석차 상경하는 각도의 제사(諸士)를 초대하여, 완곡하게 세계의 대세와 동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내선융화의 필요성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옹이 경성일보 사장 재임 중,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개최한 것이었는데, 회를 거듭함에 따라, 유림 역시도 그를 깊이 신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유림 초대는 당시 옹의 우거(寓居)였던 태화정(太華亭: 일시 이완용씨의 주거였던 적도 있으며 현재는 서양인 소유로 돌아가 있음)에서 개최되었는데, 실내에는 이퇴계(李退溪)라든가 송우암(宋尤庵), 정포은(鄭圃隱), 이율곡(李栗谷) 등 유림이 숭배하는 고래(古來) 명현(名賢)의 □□서적 등을 진열하고, 본인은 스스로 한복을 착용하고 접대역을 맡는 등, 그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아베가, 조선을 멸망한 왕조의 나라, 혹은 '연민 내지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미개적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기존 연구 성과 속에서 제시된 바 있다.¹³⁾ 나카무라의 이 기록 속에서도 유사한 점이 제시되고 있다. 아베가 조선 유림의 세계관을, 계몽이 필요한 '시대착오적인 소중화주의'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조선어 독해 및 회화가 불가능한 아베가, 한복에 갓을 쓰고 유림을 접대했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 퇴계, 우암, 포은, 율곡 등의 저서를 진열했다는 에피소드도 이색적이다. 이런 아베의 면모 속에 정치적 चेस्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일련의 행위 속에, 조선 유학에 대한 아베 나름의 학습 내용이 깔려 있음도 추측 가능하다.¹⁴⁾

조선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와 정책을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문제적으로 보여준 부분은 16일자 「옹과 조선불교의 부흥」이다. 내용의 대부분이 그간의 연구 성과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아베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두 부분의 기술 내용을 본다.

13) 위 논문, 426-427쪽 참조.

14) 아베는 1916년 경성일보에 발표한 두 편의 조선기행문 속에서 이순신, 이성계 등 조선 조 무인들, 그리고 포은, 목은 등 조선 유학의 거두들에 경의를 표하는 언급을 수차례 남긴 바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아베의 조선 유학 관련 발언은, 상당 정도 축적된 학습량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데가 있다. 기행문 관련 건은 위 논문, 422-427쪽 참조.

옹이 조선에 온 이래 가장 깊이 느낀 것이 조선의 정신문화의 황폐가 극에 달해 있었던 점이었다. 옹은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찾아서는, 조선의 고문화 완상(賞玩)을 즐겼는데, 찬연(燦然)한 불교문화 유물을 매번 목도하고는, 금일의 조선의 정신문화의 황폐는, 실로 불교 훼망(毀亡)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라고 통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 기타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정신문화의 부활이 급무 중의 급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교의 부흥을 통해 이뤄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이유로 옹은 조선 사찰에 대한 시찰을 시작한 것이었다.

아베는, 식민지 조선의 핵심 문제가 '정신문화의 황폐'에 있으며, 그 원인은 조선왕조의 '불교 훼망' 정책에 있다, 조선의 '정신문화의 부활'은 조선 '불교의 부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고 나카무라는 쓰고 있다. 1916년 발표된 아베의 조선기행문 속에서도 유사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¹⁵⁾ 나카무라의 기술 내용은 상당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에서 수행 생활을 해왔음은 물론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에서도 포교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던 아베로서는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이 속에는 명치 정부의 폐불훼석(廢佛毀釋) 운동에 대한 아베 개인의 비판적 관점 역시도 병치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베가 2회에 걸쳐 조선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¹⁶⁾ 나카무라의 새로운 기록으로 미뤄 보건대는, 아베의 조선 사찰 방문이 우발적 혹은 정치제스처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문화에 대한 그 나름의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지속적·조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음 역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나카무라의 기록 속에는, 아베가 사찰 방문 과정 속에서 조선 불교의 전통과 저력을 확인했으며, '내지'의 불교보다도 오히려 장래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한일 불교계의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불교의 연구를 위해 고마자와 대학 출신의 일본인 승려를 범어사에 보내 수행케 하고 박한영 수하에서 수업을 쌓게 했다는 사실 등도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조선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31본산 초대회를 개최하고, 조선 사찰들의 불경 산일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의 불경을 도입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15) 위 논문, 427-431쪽 참조.

16) 주12 참조.

웠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조선 승려들의 신임을 얻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들이 기록되어 있다.

나카무라의 이 기록 내용 속에 총독 정치의 업적을 미화하는 논리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물론 높다. 그러나 아베의 이러한 정책이,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정책 아래 위축되어 있던 조선 불교계의 어느 부분에 순기능적 차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베의 이러한 조선 불교 '부흥'책은 식민지 시대 한일 불교 교섭사의 측면에서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7일자에 수록된 「웅과 천도교」, 「웅과 기독교」는 기술 양은 적은 편이나, 불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아베의 정책과 태도의 일단이 드러나 있다. 아베는 종교로서의 천도교에는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으며, '전국 300만 신도'라는 그 사회세력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교주 손병희와의 교유 관계를 지속해 나간 것 같다.¹⁷⁾ 나카무라는, 아베가 경성일보를 사임하고 일본에 돌아간 그 이듬해에, 천도교 세력이 주도한 3.1운동이 발발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아베가 있었다면 천도교의 참가만이라도 방지가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천도교 측의 수행자들을 옥중 방문하고 그들에 대한 사법적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아베가 막후 활동을 벌였던 사실, 그리고 '관헌의 감시' 속에서 그들의 '덕화'를 위해 애를 쓴 아베의 '고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도 아베는 종교적 관심은 없었던 것 같으나, 윤치호(尹致昊)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가 요구하는 각종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면모들을 제시하고 있다.

「웅과 천도교」속에서 나카무라는 조선 종교계를 대하는 아베의 면모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당시 천도교는 신도 3백만이라 불리고 있었던 바 일대 세력을 뿔내고 있었다. 웅은 조선 통치와 그러한 거대 단체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웅은 항상 교주와 교유하면서 안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7) 3.1운동 이후에도 아베는 천도교 세력을 포섭·이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에게 포섭되어 민족운동 진영의 우경화 및 자치론 운동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대표적 인물이 최린이다. 관련 내용은 앞의 강동진 책, 41·45·60쪽 참조.

때로는 그 세력의 위협화를 통제하는 힘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추모문의 다른 부분 속에서도 제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카무라가 아베의 조선 재임시대 활동상 속에서 보아낸 주된 이미지는, ‘사회적 안전관’으로서의 면모, 즉 통치 당국과 식민지 조선사회를 매개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내선 융화’라는 중국적인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유화적인 ‘덕화(德化)’ 정책을 사용하며 식민지 체제를 안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는 정치 문화적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나카무라의 조선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미지수이나, 아베의 측근이었던 그가 아베의 경영 엘리트로서의 능력, 혹은 그 개인의 품성적 차원이라 할 만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IV. 나카무라의 추도문과 이광수의 추도문

나카무라의 추도문 속에는, 과거의 상사이자 공인으로서의 아베의 업적을 나열하는 이상의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데가 있다. 아베라는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도덕적 품성, 그것에 대한 나카무라의 호감 내지 경도라 할 만한 것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점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카무라는 아베를, ‘조선의 발전’을 위해 그들 속에서 전력을 다해 일한, 성실하면서도 도덕적 품성이 높은 일본인 엘리트로서 그리려 했던 것 같다. 그가 묘사한 아베의 개인적 품성의 정도는, 그가 얼마나 ‘조선인의 편’에 서서, 조선을 계몽·발전시키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서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아베의 인생을 기술하는 나카무라의 관점 속에는, ‘내선 융화’ 정책의 ‘시혜성’, 즉 일본의 조선 지배가 조선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관점에 의심을 품지 않는, 순박한 식민지 지배 엘리트로서의 관점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베가 그러한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앞서도 제시한 바 이광수에 의해 씌어진 「無佛翁의 追憶」(1939)이다. 이 글은 부분적으로는 나카무라의 추도문의 내용과 유사한 대목이 다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피식민지 엘리트

의 고뇌를 진하게 담고 있다. 조선 문화에 대한 애호가, 청년 계급에 대한 후원자, 종교적 보시행의 실천자, 당국의 견제 속에서도 조선의 지식계급을 후원한 인물로서의 아베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는 한편, 도산의 죽음 후 동우회 재판을 받으면서 대일 협력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던 이광수의 절망적인 고뇌 역시도 진하게 담겨 있다. 경성일보에 기행문을 발표하던 당시부터 시작하여 임정 와해 후의 귀국, 이후의 국내 생활 기간 동안 아베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광수, 그는 정치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식민지 지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책을 연구했던 아베의 노력이 거둔 최대의 성과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역으로, 아베는, 임정의 와해를 체험하면서 개량주의 노선으로 선회한 이광수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신사적인' 지배계층 엘리트였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두 축의 사이에 은닉되어 있을 수 있는 영역의 문제, 혹은 지배-피지배라는 거대 역학 구조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중간적인 지대다. 이 착잡한 이면적 사연이 새겨져 있는 이광수의 추도문과 순박한 지배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 나카무라의 추도문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지 시대 지성사의 어떤 국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아베 연구가 더 진척되어, 이런 문제를 보다 더 뚜렷하고도 심도있는 형태로 고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다.

자료: 「아베 무불옹을 추모함」-역문 전문

아베(阿部) 무불옹(無佛翁)을 추모함(一)¹⁸⁾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 백작은 일찍이 옹을 평하여 가로되 “옹은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큰일을 하는 걸 언제나 즐기는 분이”라 한 바 있다. 옹이 조선에서 행한 업적을 돌아보면, 참으로 음지에서 큰일을 하시는 것으로 시종하시었다. 그러나 옹의 그 음지에서 큰일을 하심은, 실로 일한합병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 위대 심오한 이상과 신념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이번에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특지(特持)로 종육위(從六位)에 서(敍)해지신 것은, 성인이 망극한 바이다. 지하(地下)의 옹도 필히 감격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옹의 조선 시절의 공적의 일단을 공개하여 옹의 면모를 추모하고 싶다.

一. 옹과 반도(半島) 언론계(言論界)

옹은 대정 3년 8월, 전 경성일보 사장 요시노 다자에몽(吉野太佐衛門)씨가 병으로 사임한 뒤를 이어 사장에 취임하시었다. 당시 경성일보사는 대평통(太平通: 현재의 경성부 청사 자리)에 사옥을 신축 중이었다. 요시노 전 사장은 건축 도중에 사임했으므로, 옹은 뒤를 이어 공사를 진척시킨 바, 그해 10월에는 대화정(大和町) 일정목(1丁目)의 구 사옥에서 이사하여 성대한 준공식을 올렸다. 그리고 윤전기의 설치, 연판□(鉛版□)에 활자 주조기(活字鑄造機) 설비를 완성하고, 그 위에 사진부를 신설하여 지면의 개신(開新)을 꾀하고 10교제(校制)를 12교제(校制)로 하고, 조석간(朝夕刊)을 발행하는 등, 대신문으로서의 면목을 발휘하기에 진력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총독부가 주최하는 대정 4년의 시정(施政) 5주년 기념 공진회(共進會)가 경복궁에서 개최되자, 이것을 위한 선전과 보도에 전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본사에서는 가정박람회를 개최하고 가정 개선의 촉진을 꾀하

18) '□'은 판독 불능 부분. '□' 전후 내용의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본어를 그대로 병기했다. 원문은, 복문이 중첩된 전형적인 만연체에 관료적 특성이 강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시, 이 같은 원문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였다.

고, 또한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에게 병합 후의 조선 사정을 소개해 마땅한 바, 매일신보(每日申報)의 만주 진출을 기도함과 동시에, 조선 인사로 구성된 남북 만주시찰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단장이 되어 재만조선인을 위문하고, 나아가 내지의 조선인 동화 상황을 친히 시찰하려는 뜻을 세우고, 이와 더불어 조선인 인사를 망라한 규슈 일순시찰단(九州一巡視察團)을 조직하고, 가고시마(鹿兒島)의 묘대천(苗大川)의 조선인 부락시찰의 단초를 여는 등, 옹은 항상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 사이에 옹은 조선 전도(全道)의 언론계의 친화통일(親和統一)을 꾀하여, 대정 4년 경성에서 개최된 전국 신문기자대회의 회장이 되어, 이것의 완성을 기한 바,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어 전 조선 언론계의 친화통일이 훌륭하게 완성된 것이었다. 이것은 반도 신문계에 있어서 대서특필해 마땅한 대사업의 완성인 바, 당시 총독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이 이를 표창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故) 모토야마(本山) 오사카 매일(大毎) 사장은, 이에 대하여 「옹이 조선 전도(全道)의 신문계의 친화통일을 완성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룩할 수 없는 난사(亂事)인 바, 신문계의 선진자(先進者)로서 깊은 경외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상찬한 것이었다.

아베(阿部) 무불옹(無佛翁)을 추모함(二)

二. 옹과 귀족 사회

옹이 경성일보 사장시대 재임 중, 특히 힘을 기울인 것이 조선의 각 사회층과의 접촉과 연락이었다. 경성일보가 그 편집 면에서 항상 이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물론이었으나, 옹은 스스로 그 일선에 서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 활약한 것이었다. 명치 24년, 조선의 지사인 숲, 박 제씨가 동경 망명 중이던 시기, 옹은 양씨를 찾아 깊이 체맹(締盟)한 바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니, 옹의 경성일보사장 취임은, 그 숭지(崇志)를 실행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옹은 우선 귀족사회와의 접촉을 기도했다. 일한 병합의 대공헌자였던 이완용, 송병준, 조중응 제씨를 위시하여 귀족 전반에 대한 옹의 교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이다.

옹은 조선어를 몰랐으므로, 당시 국어에 능통했던 매일신보 기자

출신의 방태영(方台榮) 군을 발탁하여 통역 겸 비서로 삼았다. 그리고 매신의 방태영 군의 통역을 통하여 귀족사회와 밀접한 접촉을 기도한 것이었다. 금일과 달리 병합 후 겨우 4·5년이 지났을 뿐이었던 당시에 있어서 옹의 고심(苦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귀족사회가 옹을 신뢰하는 정도는 날과 달이 갈수록 더욱 배가되어, 옹은 귀족사회에서 유일한 상담 상대가 되었던 것이었다. 귀족의 필두라고도 해 마땅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한국(韓國) 시대에 일곱 번이나 대신에 임명되었으면서도 고집을 세우고 한 번도 그를 배수(拜受)하지 않았다고 하는 풍모의 윤용구(尹用求)씨 같은 이도, 옹이 대정 6년, 경성일보 사장을 그만두고 동경에 돌아가게 되자, 이를 크게 애석히 여겨, 「아베씨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다, 그런 이가 조선에 있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실로 안타깝다. 아베로(老) 같은 이가 하다못해 2·3인이라도 조선에 있었다면, 양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하고 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로 볼 때 옹이 귀족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는가를 추찰(推察)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三. 옹과 유림

옹은 유림(儒林)의 세력도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당시 유림 중에는 아직도 완고고루한 선비가 많아, 조선 문명 이상의 것은 없다, 일본의 문명은 조선 문명보다 까마득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왜로(倭奴) 따위 등으로 부르기를 꺼리지 않는 무리도 많았다. 옹은 이러한 유림을 향하여 동양의 대세를 알리고 일한병합이 이뤄지게 된 이유를 이해시켜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유림과의 접촉을 꾀한 것이었다. 우선 경학원(經學院) 대제학(大提學)을 위시하여 부제학(副提學), 사성(司成) 등 간부진과 교제를 쌓고, 연후에는 춘추(春秋)기에 행해지는, 경학원의 석존제(釋尊祭)에 참석차 상경하는 각도의 제사(諸士)를 초대하여, 완곡하게 세계의 대세와 동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내선융화의 필요성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옹이 경성일보 사장 재임 중,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개최한 것이었는데, 회를 거듭함에 따라, 유림 역시도 그를 깊이 신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유림 초대는 당시 옹의 우거(寓居)였던 태화정(太華亭: 일시 이완용씨의 주거였던 적도 있으며 현재는 서양인 소유로 돌아가 있음)에

서 개최되었는데, 실내에는 이퇴계(李退溪)라든가 송우암(宋尤庵), 정포은(鄭圃隱), 이율곡(李栗谷) 등 유림이 숭배하는 고래(古來) 명현(名賢)의 □□서적 등을 진열하고, 본인은 스스로 한복을 착용하고 접대역을 맡는 등, 그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다.

아베(阿部) 무불옹(無佛翁)을 추모함(三)

Ⅳ. 응과 조선 불교의 부흥

응이 조선에 온 이래 가장 깊이 느낀 것이 조선의 정신문화의 황폐가 극에 달해 있었던 점이었다. 응은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찾아서는, 조선의 고문화 완상(賞玩)을 즐겼는데, 찬연(燦然)한 불교문화 유물을 매번 목도하고는, 금일의 조선의 정신문화의 황폐는, 실로 불교 훼망(毀亡)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라고 통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 기타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정신문화의 부활이 급무 중의 급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교의 부흥을 통해 이뤄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런 이유로 응은 조선 사찰에 대한 시찰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시찰 결과로서 얻게 된 바는, 조선의 사찰 및 승려는, 세인이 말하듯, 하찮은 것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내지의 사찰이나 승려보다도 오히려 장래성이 있다, □は□だ, 지도 여하에 달려 있다. 다행히도 31본산이 法□□は□せざるのみならず, 병합 후에는 총독의 보호에 의해, 어느 정도 부활의 기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 31본산 대표자와 접촉하고 나아가 연구를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총독관저에서 열리는 총독의 본산 주지 접견 기회를 이용하여 31본산 초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정신문화 부흥을 위해, 불교의 진흥을 꾀하는 급무를 역설한 것이었다. 본산 주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초유의 일인데다가, 경성일보 사장으로서의 응의 종용(德憑)에 매우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 바, 이래 본산 주지의 응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본산 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종래 산중에 은거하고 있었던 대덕(大德)들이, 점차로 하산을 하여 응의 문을 두드리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응도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산을 찾아서는, 여러 방면으로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나아가 그 부흥을 원조했던 것이다. 응은 또한 각 본산마다 불경의 산일(散逸)을

방치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크게 놀라, 그 산일을 방지하라고 주의를 함과 동시에, 내지로부터 불경을 다수 반입하여 배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옹의 이름이, 무불거사(無佛居士)로서 지금도 조선 전도의 사찰에 알려져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옹은 조선을 떠난 후에도 조선불교의 부흥을 염려하신 바, 그 진흥을 꾀하는 방법은 우선 인재 양성이어야 한다, 조선 승려의 자제들을 내지로 보내 수행시킬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내지인 승려로 하여금, 조선의 불교를 철저히 연구하게 하는 것 등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단 하나 적임의 인물이 없음을 통탄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7년 전 고마자와대학(駒沢大學)을 졸업한 직후 도선(渡鮮)하여 동래(東萊)의 대본산인 범어사(梵魚寺)에 들어가, 3개년의 수행을 끝낸 뒤 각도에서 만행(巾行)을 피하고 31본산 및 각지에 산재하는 사찰을 방문, 상세하게 사찰을 계속하고 또한 조선불교가 갖고 있는 중승(宗乘) 연구를 위해 경성의 동대문 밖 개운사(開運寺)의 대원암(大圓庵)에서 일대의 석학인 박한영(朴漢永) 화상(和尚)에게서 지도를 받고 있는 相馬□英 사(師)는 옹의 종용에 의해 이 대사업에 뛰어든 것이었다.

(사진은 금강산 長慶庵에서의 무불옹(無佛翁). 의자에 앉은 이가 옹)

아베(阿部) 무불옹(無佛翁)을 추모함(四)

五. 옹과 천도교

옹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와도 친교가 있었다. 당시 천도교는 신도 3백만이라 불리고 있었던 바 일대 세력을 뺏내고 있었다. 옹은 조선 통치와 그러한 거대 단체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옹은 항상 교주와 교유하면서 안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그 세력의 위협화를 통제하는 힘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옹이 조선을 떠난 다음다음 해에 이르러 불행히도 독립운동이라는 불상사가 야기된 것도, 옹이 만약 당시 조선에 있었다라면, 혹 이 운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도교의 참가를 방지하는 것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발발한 것이다. 옹은 심히 이를 우려하여 즉시 도선(渡鮮)하여 그 진무(鎭

撫)에 노력하고, 혹은 수모자(首謀者)를 옥중 방문하여 수모자의 처분에 대해 관여하는 바 있었으며, 소요도 일단락을 고하고, 수모자도 각각 형기를 마치고 옥을 나오자, 그들과 밀접한 연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소고소(大所高所)로부터 말을 넣어, 그들을 덕화(德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관청의 감시하에서, 그들을 잘 덕화시킨 옹의 고충과 고심은,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을 것이다.

六. 옹과 기독교

옹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교의 부흥에 열심히 31본산 주지와의 접촉을 긴밀히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샤크소엔(釋宗演), 미야지 소카이(宮路宗海) 등의 선사로부터 선을 배우며 스스로 불교도로서 임하고 있었다. 기독교는, 그를 배척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옹은 결코 기피나 배척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선의 기독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중심 세력이었던 바인 원로 윤치호씨 등과도, 항상 접촉하여 교류를 거듭하였으며, 이 인물들을 통하여, 혹은 그 불평을 듣고, 혹은 위로하고, 혹은 그 □를 논하는 등, 축적된 불평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었다. 이렇게 옹은 관헌의 위력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옹이 각 방면의 조선인사와의 가운데에 개입하여 일심으로 내선융화의 촉진에 매진한 것은 참으로 옹의 애국심의 발로였다. 옹의 경성일보 사장으로서의 존재는 겨우 4년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 결출한 공적에 이르러서는 실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바로서, 그 수확도 결코 근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옹은 조선을 떠난 후에도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극히 적극적이었다.

(사진은 태화정에서의 각도(各道) 경학원 강사 초대. 앞열 좌로부터 4인째, 한복 차림에 갓을 쓴 이가 무불옹)

참 고 문 헌

- 《京城日報》, 1915년, 1916년분. 1936년분.
《每日申報》, 1915년, 1916년분. 1936년분.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김윤식, 『이광수 연구2』, 한길사, 1986. 6-9장.
———, 「무불옹의 추억」, 『한국문학』, 1987.6. 328-342쪽
김재호, 「식민지기의 재정지출과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경제사학』 46호, 2009, 85쪽.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 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집, 2005.2, 83쪽.
소순열, 「1920-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5권 2호, 6쪽.
심원섭,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39집, 2009.10.
심원섭, 「아베 미즈이에(阿部充家)의 조선기행문 '호남유력', '무불개성잡화」, 『한국문학 논총』 53집, 2009.12.
정일성,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8.
정진석, 「언론사 탐구 - 일제 언론침략의 총본산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연구」, 『관훈저널』, 2002년 여름.
정진석, 『언론 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1910-1923)」, 『石堂論叢』 40집, 2008, 223쪽.
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수유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33쪽.
『京城日報社誌』, 京城日報社, 1920.9.
『徳富蘇峰民友社 關係資料集』, 東京, 三一書房, 1968.
中村健太郎, 『朝鮮生活 50年』, 東京, 青朝社, 1969.7.
柴崎力榮, 「徳富蘇峰と京城日報」, 『日本歴史』, 1983.10.
齋藤昭俊・成瀬良徳(編), 『日本佛敎人名辭典』, 東京, 新人物往來社, 1986.
酒田正敏 외, 『徳富蘇峰關係文書』, 近代日本史料叢書, 7-2, 東京, 山川出版社, 1985.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 『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地 7卷 文化の中の植民地』, 東京, 岩波書店, 1993.

국 문 요약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1862-1936: 4대 경성일보 및 3대 매일신보 사장)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체제 내로 회유하는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이토 마코토 총독(齋藤實)의 정책 참모로 장기간 활약한 인물이다. 이 글은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가, 아베의 사망 직후 쓴 추도문인 「아베 무불翁을 추모함(阿部無佛翁を偲ぶ)」(1936.1, 경성일보)을 분석하여, 아베의 조선 내 활동 내용들을 새롭게 제시해보려는 목적 아래 씌어졌다.

나카무라 겐타로는 아베가 ‘뒤에서 조용히 큰일을 추진하는 인간형’이라는 점, ‘내선일체’를 실현하려는 신념 아래 ‘조선문화를 이해하고 조선인과 융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하 나카무라가 제시한 아베의 새로운 면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는 경성일보 운영 중, ‘남북 만주시찰단’의 ‘단장’으로서 재만 조선인의 ‘위문’에 직접 나섰다. 가고시마의 묘대천(苗大川) 조선인 부락 시찰의 단초를 열고, 전국 신문기자 대회의 회장이 되어 조선 언론계의 통일을 꾀했다.

두 번째, 아베는, 한일합방의 조선측 주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방태영을 통역 겸 비서로 쓰는 등, 조선의 구지배계급의 신임을 사는 데 진력했다. 1989년에는, 일본 망명 중이던 김옥균, 박영효 등과도 교분을 나누는 바 있다.

세 번째, 조선의 ‘정신문화의 부활’을 위해 노력했던 아베는 조선 종교에 포용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 리더들과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조선의 유림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소중화주의’를 깨우쳐 주려고 노력했다.

네 번째, 조선왕조의 탄압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 저력을 유지해 온 조선 불교에 그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명찰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는 한편, 조선 불교의 진흥을 위해, 사찰 제도의 정비, 불경 제공, 일본 불교와의 교류 도모 등 지원을 했다.

네 번째, 천도교 및 기독교 리더들, 손병희, 윤치호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위험세력화되는 경향을 막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했다. 3.1운동 발발 후에는, 사법당국의 견제 속에서도, 운동 주역들의 구제를 위한 막후 활동을 벌이며, 그들의 ‘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카무리는, 아베를, 통치 당국과 조선사회를 매개하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했던 실무형의 인물, 내선 융화라는 중국적인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유화적인 ‘덕화(德化)’ 정책을 사용하며 식민지 체제를 안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려 노력한 정치 문화적 리더로 보았던 인상이 짙다.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 및 보완 연구를 통해 아베의 조선 재임 시대의 사상과 활동상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밀한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0. 1. 13.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2.

주제어(keyword)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Abe Mitzihe), 아부충가(阿部充家: Abe Mitzihe), 무불(無佛: Mubul),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Nakamura Kentaro), 이광수(李光洙: Lee, Kwang-Soo), 김옥균(金玉均: Kim, Ok-Kyun), 윤치호(尹致昊: Youn, Chi-Ho), 경성일보(Keizyou Press), 매일신보(Maeil Shinbo newspaper), 조선 불교(Korean Buddhism), 「Cherishing the memory of Abe(阿部 Mubul-ong(無佛翁)」